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 권 _ 제 191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11월 5일

함즐함울

www.pcltv.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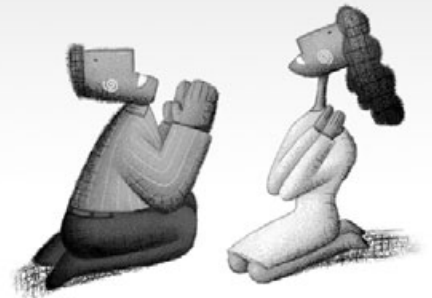
샌디에고 주님의교회는 2004년 9월 5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시작된 한인교회다. 미국 Zion 침례교회의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는 2005년 6월 3일 당시 우리교회 부목사인 윤덕영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지난 9월 3일은 창립2주년 기념예배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렸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lordschurch.us



외국인 근로자 진료	2면
환경학교	2면
양육 클래스 취재	3면
5-18 구역 나들이	4면

로템나무

진정한 감사



며칠 전 전철 안에서 어느 젊은 남녀가 눈을 맞추고 수화로 무언가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았다. 수화를 모르는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나를 포함한 주의의 사람들은 낮은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너무나 신나했다. 그들은 그들만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저렇게 수화를 하면 얼마나 갑갑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잠시 세치 혀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기도 하며 들으나마 나한 말을 수없이 내 뱉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정말 부끄러웠다. 언젠가는 수화를 배워 꼭 봉사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아직은 마음뿐이다.

지금에 만족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매사에 긍정적인, 따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오늘도 노력해 본다. 그렇게 조금만 멀리 떨어져 나를 돌아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는 그 생각도 잠시, 일상에서는 다시 욕심을 갈망하고 만족도 모른 채 버둥버둥 거리며, 한 가득 가지려는 속앓이를 하고 만다.

신형섭(집사, 장애인팀장)

추수감사예배 (11월 19일 오후 3시 30분 대예배실)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11월 셋째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다. 요즈음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감사의 이유들이 많이 사라진 듯 보이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동안 주일학교를 제외하고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온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예배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10년동안 누워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황교진씨(‘어머나는 소풍중’의 저자)를 초대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그 밖에도 어린이 연극, 시각장애인 특별순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주의에 있는 친척과 이웃 중에 오랜 시간동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초대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인터넷 서류발급신청안내

주님의교회 홈페이지에서 기부금납입증명서, 이명증서, 세례증명서, 교인증명서 등의 서류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www.pcltv.org) 메인의 하단에 있는 “인터넷사무실”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각종서류발급으로 사무실이 복잡하오니,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인의 하단에 있는
“인터넷사무실”을 클릭!



교사 훈련원 오늘부터 시작!

2007년도 교사 교육을 위한 교사훈련원이 11월 5일부터 4주간 오늘 3시부터 중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예배의 현장

사랑의 나눔의 음악회

■후원금 전액 지역사회의 결식학생들에게 전달



지난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 앞서 우동윤 목사는 주기도문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로 말씀을 전했다. 우목사는 세상의 한쪽에서는 음식을 쓰레기가 넘쳐 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현실을 지적하며 절박한 이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 희망의 양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살림찬양대 지휘자인 이동훈

집사가 서울 칸티클 합창단을 지휘하였다. 소외된 곳을 찾아 합창을 통하여 기쁨을 전하는 서울 칸티클 합창단은 아름다운 합창과 우리 가곡, 전래동요 편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회를 이끌었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혜, 박성민과 이윤영의 플루트 2중주, 소프라노 박미자의 찬양도 이번 음악회를 더욱 빛내주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을 비롯, 다수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대예배실을 가득 메워 음악회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칸티클 합창단은 두 번째 앵콜 공연까지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음악회에서 모금된 400여만원의 후원금 전액은 정신학원과 지역사회의 결식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음악회에 참석한 고정옥 집사는 ‘작은 정성이 불우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진료,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봉사



주님의교회 의료선교부에서는 매월 3팀으로 나누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진료

/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 중 다수는 몸이 아파도 금전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통은 물론 병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접하게 된 의료선교부는 의사, 간호

사, 약사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봉사에 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문의: <의료선교부장> 김학원 집사 011 9769 6937

<외국인 근로자 진료 봉사 일정>

- 1) 매월 첫째 주
오후 3시 ~ 5시: 광장동 외국인 센터 : 의료 진료
(팀장) 김재중 집사 019 224 3154
- 오후 4시 ~ 6시: 하남시 외국인 센터 : 치과 진료
(팀장) 이보영 집사 016 736 9830
- 2) 매월 둘째 주
*오후 2시 ~ 4시: 안산 외국인 센터 : 의료, 한방, 치과 진료
(팀장) 김광일 집사 017 232 5880

오늘 기도



죽여!
제가 너무 약하고
눕니다.

존귀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프타임강좌>

예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사역 해야 할 것인가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지하철 역사에서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자야하는 이들이 더욱 걱정됩니다. “지금

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마 25:40)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희망도 없이 배고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친 노숙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갖습니다. 노숙인 사역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신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노숙인 사역강의 안내

일 시 : 2006. 11. 12(일) 오후 1: 30 ~ 3 : 30
장 소 : 중보기도실 (5층)
강 사 : 윤 건(거리의 천사들 총무)
문의 : 노숙자사역팀장 정준호 집사 011 735 5400

환경/학/교/

“몸과 맘, 땅을 살리는 생명 밥상”



환경연대 사무국장)은 “몸과 맘, 땅을 살리는 생명 밥상”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의 몸과 아름다운 자연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만나는 밥상이 어떻게 오염이 되어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수입농산품과 가공식품 속에있는 방부제,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했다. 모든 자연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약을 많이 쓴 음식물은 흙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으며 분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우리의 몸을 위협하고 환경성 질병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환경 사역팀은 자연의 생태와 환경에 관심 있는 교우들을 대상으로 환경학교를 시작했다.

지난 11월 1일 첫 번째 강의에서 유미호 선생(기독교

이번 환경학교 11월 1일부터 5주간에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열린다.

<생명의 밥상>

- 첫째, 자연이 병들면 몸도 마음도 안전하지 못하다.
- 둘째, 잘못된 밥상이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을 병들게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건강하게 성장 시킨 생명의 사랑을 밥상에 올리지 않고 생명의 고통과 식품 첨가물 방부제가 든 가공식품을 밥상에 올리기 때문이다.
- 셋째, 음식의 홍수 속에서도 밥상은 여전히 빈곤하다. 농약으로 범벅되고 철에 상관없이 재배되는 채소 등은 자연에 대한 공격형 저항 호르몬이 가득한 음식일 수 밖에 없다.
- 넷째, 밥상을 차리고 먹는 일야말로 거룩한 일이다. 우리들에게 길들여진 잘못된 식생활을 고쳐야 한다.
- 다섯째, 감사의 마음으로 밥상을 맞이해야 한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정성과 나의 몸에 대한 고마움으로 매일 대하는 밥상을 대해야 한다.

양육 클래스/하프타임 취재

〈예수님 다시 알기-요한복음연구〉

구원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예수님 다시 알기(요한복음연구)'를 정희성 목사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요한복음서를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살펴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 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요한복음 3장을 함께 공부하고 3:16~17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서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정희성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의 일만이 아니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있으니 예수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물을 보는 훈련을 해나가자고 참석자들을 권면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하프타임강좌〉

속 썩이는 자식이나 남편이 있으면 치매에 안 걸린다!?



하프타임 양육과정은 매주 화요일 강사와 주제가 바뀌어 실시된다.

10월 17일 화요일은 황의완 집사(경희대 교수)의 뇌 질환과 치매에 대한 교양강좌가 있었다. 이날 강연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예정시간을 훨씬 넘어서까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황 교수는 강연 중 치매에 잘 걸리는 유형으로 취미생활 없이 무료한 생활을 하는 사람, 일만하는 사람, 비사교적이고 친구가 없는 사람, 돈에 궁핍하지 않고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 완고하며 자폐적 자기주장이 많은 사람, 세상을 사는 보람이 없는 사람 등을 예시했다.

또한 치매 예방으로는 머리를 다양하게 쓰며 늙어서도 독서를 생활화 할 것과 감성을 주관하는 오른쪽 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예술문

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자기 취미생활을 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꾸준히 운동할 것도 권장했다.

일찍이 치매의학 분야를 개척한 황교수는 "바쁜 노인에게는 치매가 없다", "속 썩이는 자식이나 남편이 있으면 치매에 안 걸린다."라는 임상적 경험도 들려주었다. 만일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전문요양소로 모시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이날은 치매와 더불어 활성산소와 기(氣)에 대한 내용도 쉬운 예를 들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 특히, 기(氣) 수련의 상업화와 종교화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과후학교

수험생에게 말씀선물 나눠주기 행사



지난 10월 22일, 10시부터 고등부예배가 열리는 지하 중강당에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준비한 고3수험생들을 위해 25일간의 말씀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수능이 25일 남은 시점에서 고3수험생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선물상자를 열면 먼저 각종 사탕과 초코렛이 들어있고, 그 사탕을 먹으면 안쪽에 일일이 포장된 25개의 말씀이 나온다. 하루 하루 아침마다 포장을 벗겨서 그 날의 말씀을 섭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교사들은 분반공부시간에 고3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선물사용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선물을 직접 만들었던 한 방과후학교 교사는 고3수험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수능에 승리하고, 대학진학한 후 후배들을 양육하는 일로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Miss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시월의 마지막 밤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10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월'이 아니라 '시월'로 씁니다. 이는 한글맞춤법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에 따른 것입니다. 속음은 흔히 쓰는 음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런 때는 익은 소리를 표준어로 삼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한자 발음과 우리말 표기가 다른 낱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규정에 맞추어 '십월'은 '시월'이라고 쓰는 게 맞고, '육월'은 '유월'로 쓰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육월'도 '오유월'이 맞습니다.

중등2부 이재욱목사 송별식



다. 몇몇 학생들이 송별사를 낭독할 때 눈물을 흘렸었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다들 밝은 모습이었다. 한편 교사들은 교사들이 손으로 한명 한명씩 쓴 편지를 전달하고 같이 기념촬영을

했다. 지난주(10월 29일), 중등2부 예배시간에는 이재욱목사 송별식이 있었다.

서대문교회 교육전임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이재욱목사는 담임4:6-8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기로'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했다.

송별식 순서에서는 중등2부회장인 구하나(3)와 최주연(3)학생이 송별사를 낭독하고, 꽃다발을 증정했고 마지막으로 이재욱목사와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원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는 순서를 가졌

했다.

이재욱목사는 주님의교회사역이 이전까지의 교회 사역이랑 달랐다고 하며, 교회마다 지역적 특성과 교회특성상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파악하고 적응할 만하니까 가게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또 이목사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르치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본인에게 배웠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여전히 '주님의교회 사역자다'라 생각한다고 했다.

교회생활 이모저모

교사모집



교육부에서는 지난 2주간(10월22일, 29일) 1층 로비에 '교회학교 교사모집' 안내 데스크를 설치했다.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반해 교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교사훈련원 기간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교사모집을 한다

주방액자설치

지난 주(10월29일)부터 지하식당에 액자가 설치되었다. 지하식당은 공공기관의 식당 구조로 되어있는데, 그림이 걸리면서 좀 더 아늑한 공간으로 연출되었다.



고등부 예배 특별 헌금

지난 주(10월 29일) 고등부 예배에서는 홍승현군을 돕기위한 특별헌금이 있었다. 승현군은 지난 9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현재 순천향병원에 입원중에 있다. 모아진 성금은 승현군의 치료비에 사용된다.

피택자 주방 봉사 실습



지난 10월 22일 주일, 피택자교육 주방부 실습이 11시 30분부터 지하 식당에서 있었다. 그동안은 구역 주방부 봉사 시간을 통해 제한된 시간에 부분적인 봉사에 참여했었다면 이번 피택자교육은 주방과 홀 청소 등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실습을 해야 했다.

가장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3부 예배는 제공되는 국수도 1,000여 그릇이 넘는다. 교육을 받는 피택자들은 한꺼번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 주방이 바빠져 돌아가고 주방부원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능숙히 처리해 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봉사 후 한 실습자는 국수의 국물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바빠 움직여야 함을 알고 난 후에는 국물 한 모금이라도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봉사실습 후 소감을 밝혔다.

5-18구역 가을맞이 나들이

이야기꽃의 바다에 빠지며 모두들 깔깔깔...



여성구역인 5교구 18구역 식구들이 정말 어렵게 멀리 나들이를 갔다. 주부들이기에 아이들과 남편을 떼어놓고(?) 하루도 외출하기 어려웠지만, 10월 20-21일 1박2일간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단합대회 겸 구역모임을 가졌다.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출발! 가는 동안 차안에서 그동

안 못다 나누었던 이야기꽃을 피우며,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을하늘과 경치를 감상하며 서해대교를 건너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저녁때는 해변을 거닐고, 맛있는 회도 먹고 또 이야기꽃의 바다에 빠지며 모두들 깔깔깔...한 자리에 모두모여 감사기도 드리고 성경 읽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올라오는 길에 자연휴양림에 들러 소나무 삼림욕을 하고 수목원에 들러 좋은 공기도 마시며 다시 한 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사정이 있어 비록 구역식구 모두가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모두들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